

HOME > 전국 > 강원

원주 반계저수지 통수식 개최...풍년 기원과 농업용수 안정 공급 다짐

✎ 이우정 기자 | Ⓜ 승인 2026.04.13 17:10

[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시사는 반계리 저수지에서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풍요로운 한해 농사를 기원하는 풍년기원 통수식을 진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시사는 10일 반계리 저수지에서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통수식을 진행했다.

통수식은 '논에 물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해 모내기 시작 시기에 맞춰 수문을 열어 물을 통하게 하는 것으로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풍요로운 한해 농사를 기원하는 행사다.

이날 통수식에는 김명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김준희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곽후신 문막농협 조합장, 박천희 한농연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물놀이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감사패 수여, 2026년 급수계획 보고, 수문 개방, 떡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1958년 준공된 반계저수지는 하류부 농경지 약 176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원주시사에서 관리하는 총 저수지는 16개이며 이 중 반계저수지의 총 저수량은 280만톤으로 원주관할 저수지 중에서 가장 크다.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이사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식량안보의 일선에서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용수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고 농업인들과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적절하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기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은 “오늘 통수식을 기점으로 우리 공사는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풍년 농사 결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적기 정량의 용수 공급과 배분, 빈틈없는 배수 체계 유지, 재난재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가뭄 등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중 농업용수 절약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낭비 없는 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원주=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이우정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